여수시 '스마트 예측행정시스템' 구축

다양한 빅데이터 정책수립 활용

12월부터 내부 서비스 제공

여수시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예측행정시스템'.

여수시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한 '스마트 예측행정시스템'을 구축해 눈길을 끈다.

여수시는 오는 12월부터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예측행정시스템' 내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스마트 예측행정시스템'은 여수시의 맞춤 데이터와 지도를 융합한 정책지도를 말하며, 사회·경제 및 시정현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분석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분석된 자료는 차트와 그래프로 시각화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고, 여러 분야의 데이터를 융합해 경제, 민원, 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정책지표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분석 후 예측 기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분석'과 '클린하우스 입지 분석'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석'은 지역 내 매출현황을 행정동별, 분야별로 분석·예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클린하우스 입지 분석'은 가정과 비가정 부문으로 나눠 쓰레기 배출 인구를 분석하고, 배출현황을 여수시 지도와 융합해 클린하우스 입지 후보를 예측하는 서비스이다.

여수시는 지난 10일 정기명 시장과 관계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하고 최종 보완을 거쳐 12월부터 내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예측행정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의 활용능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인 정책수립의 지표로 활용하고, 시민들께도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순천시 '2022 로컬 콘텐츠 페스타' 대상 수상

노관규 시장 '대한민국 이정표' 특강

대상을 수상한 노관규(오른쪽) 순천시장.

순천시가 '2022 로컬 콘텐츠 페스타'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25일부터 나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22 로컬 콘텐츠 페스타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국내 최초 로컬 콘텐츠 박람회로 문화·관광·공간 등 전국 지자체 우수 콘텐츠를 공유하는 장으로 시상식과 함께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풍요로운 강연이 이어졌다.

이번 대상 수상은 노관규 순천시장이 기초지자체장 중 유일하게 특별 초청되어 '순천만 전봇대를 뽑은 그남자! 대한민국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다'라는 주제로 강연해 지역의 발전 모델을 기획했던 그간의 과정과 성과가 높이 평가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노 시장은 14년 전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브랜드를 탄생시켰고 이는 국내 첫 정원박람회(2013년), 제1호 국가정원 지정(2015년), 호남3대도시 발전 등이 차례로 성사된 배경이 됐다.

아울러 순천시는 10년 만에 열리는 내년 4월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세계 최초 랍사르 순천만 어싱길과 시내 뱃길 복원 등으로 대한민국 국가정원 1호에 이어 또 한 번 대한민국 최초에 도전하고 있다.

특히 25일 페스타에서 노 시장은 세계 최초 흑두루미를 위해 전봇대를 283개를 뽑은 사연을 전격 공개하며 교통, 주거, 인구문제 등 대한민국이 처한 시대 위기에 "순천만과 정원박람회는 우리가 살아갈 미래도시 모습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모델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시상식에서 "지역 콘텐츠를 육성해 지역이 잘 사는 세계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행사에서 순천이 대상을 차지해 무척 뜻깊다"라며 "이제는 지역소멸 시대로 도시는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으로 재편돼야 하며 인접도시와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31명 채용

12월 6~8일 채용서류 접수

광양시가 2023년 광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31명을 채용한다.

모집분야 및 인원은 보육전문요원 3명, 상담사 1명, 운영요원 2명, 시간제 보육교사 2명, 주말 시간제 보육교사 2명, 대체교사 관리자 1명, 대체교사 18명, 청소원 1명 등이다.

채용서류 접수기간은 오는 12월 6~8일로, 접수를 희망하는 사람은 광양시청 홈페이지(gwangyang.go.kr) 뉴스/소식란 '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전부터 주민등록지가 광양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분야별 자격요건은 공고문에 의한다.

접수 희망자는 지정된 서식을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광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4층 사무실로 방문 제출하면 되고, 방문 시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는 접수된 서류의 적격 여부를 1차 심사하고 2차 면접심사는 12월 12~13일 중 실시하며, 면접시험 합격자는 12월 16일 결정할 예정이다.

이어 면접시험 합격자의 아동 학대 및 성범죄경력 조회와 신체검사를 시행한 후 12월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근무조건 및 보수 등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광양시청 교육보육과(061-797-1961)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곡성군 청소년상담센터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또래상담자·1388지원단 참여

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2일 곡성중앙초등학교에서 또래상담자, 1388청소년지원단과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

또래상담자는 학교 내에서 고민을 가진 친구를 도우며 공감 배려 문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1388청소년지원단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주로 청소년 유관기관, 약국, 학원, 택시, 지역상인 등 지역사회 내 자발적 참여 조직이다.

이번 캠페인에서 저학년 대상으로는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며 또래관계를 강화하는'얼굴 감정 표현하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고학년에게는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반려식물 심기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또한 학교 폭력 예방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해 각자의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다.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또래상담자와 1388청소년지원단이 함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만 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 문제 해결과 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심리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061-363-9586) 또는 청소년전화 1388을 통해 상담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구례군 '옛 문척교' 대체 교량 현위치에 설치

소공원 등 주민 편의 시설도 조성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던 섬진강 '옛 문척교' 철거 공사가(광주일보 2022년 8월 15일자 13면 보도) '구문척교보존을위한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박정선·이하 대책위)'와 구례군이 대화를 통한 소통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29일 대책위와 구례군에 따르면 애초 현재 옛문척교를 철거하고 하부쪽 수백미터 아래에 대체 인도교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변경해 철거후 제 자리에 인도교를 설치하기로 하고 세부 사항 조율에 들어 갔다.

양측이 협의한 중요 내용은 다리 기점인 구례읍 쪽은 현지점에서 상부로 30m 옮겨 설치하고, 종점인 문척면 방향은 현위치에 시공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대책위는 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문척면쪽에 소공원등 편익 시설 조성을 건의했다. 구례군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 공동 분모를 찾아 나가기로 했다.

한편, 옛문척교는 1972년 섬진강을 사이로 두고 구례읍과 나눠진 문척~간전면을 이어주는 폭 7m 길이 420m의 교량으로 2020년 8월 수해의 원인으로 지목돼 재해 방지를 위해 철거를 결정한 50년 된 다리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100인 판소리 공연…보성종합예술제 성료

보성의 문화예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제2회 보성종합예술제가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최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2회 보성종합예술제에는 한국예총 보성지회 (지회장 서정미) 주관으로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0인 판소리 합창공연, 읍면 마을이야기 대회, 지역 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였다.

또 보성문인협회, 보성미술협회, 연예예술인연합회보성지회 등 다양한 예술단체가 참여해 종합예술제의 격조를 높였다.

특히 지역 명창들에게 특훈을 받은 보성군민 100명이 함께 부른 '100인 판소리 합창공연 사철가'는 서편제의 본향이자 소리의 고장 보성의 면모를 보여주는 특색있는 무대로 호평을 받았다.

12개 읍면에서 참여한 '마을이야기 대회'는 우리 동네를 소개하는 이야기 대회로 지역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주민들이 함께 만든 마을 영상을 현장에서 선보였으며, 외부 심사위원이 심사를 진행했다. 대상은 보성읍의 태평골 마을, 우수상에 회천면 연동마을과 노동면 거석마을이 차지했다.

'100인 판소리 합창공연 사철가'는 올해 4월부터 연습을 시작했으며, 읍면 마을이야기 대회는 여름부터 촬영을 준비해 오랜 기간 주민들이 힘을 모아 제작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